

유교문화권에 불교바람

가장 한국적인 것들의 보고(寶庫)라는 안동. 한국 성리학의 본고장으로서 유교문화의 중심. 명현거유(名賢巨儒)들이 줄지어 배출된 곳이며, 무수한 서원과 루(樓)와 정(亭)이 있는 곳.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에는 제2의 경주'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법흥사에서 서약사까지 절의 주춧돌들이 이어져 고을을 비 한방울 맞지 않고 거닐 수 있었다고 하는 유서깊은 불교성지였다.

지난해 4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방문에 이어 최근 정부의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정책의 가시화로 안동지역이 주목받는 가운데, 불교 중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체류가 묻은 하회마을과 함께 국내 최고의 목조건물이 있는 봉정사(주지 문인)에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 초파리에는 봉정사에서 처음 일반에 공개된 괘불 앞에서 국악과 승무, 서예 퍼포먼스 등을 결집한 아단박이 펼쳐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따라 올해 경북도내 유·무형 문화재의 보수,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 7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불교문화재의 보수·복원도 활발해지고 있다.

도내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사업 가운데 불교관련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벽화보수 등 5억7천100만원 △영주 부석사 삼층석탑 범종각 보수 등 4억원 △경주 불국사 및 석굴암 유물전시관 건립 12억원 △김천 직지사 대웅전 명작암 건립 6억원 등이며, 도비



△안동지역 신행을 이끌고 있는 대원사는 특히 불교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새싹들 키우기에 관심이 많다. 사진은 7월23일 대원사 여름 어린이불교학교 졸업식 모습.

안동·영주 등 불교문화재 보수 활발 경북불교대 등 지역유지 포교 앞장

보조사업은 △영주 회방사동종(유형문화재) 요사채보수 1억원 등이다. 또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문화재정비부문은 △봉정사 주변정비 32억5천만원 △울진 불영사정비, 남사고선생 유적복원 등 14억7천만원 등이다.

하지만 유교문화권에서의 불교중흥 조짐은 이런 외형적인 면과 함께 신행 활성화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안동, 영주, 의성, 봉화 등 경북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교운사(주지 법조)가 청정 수행도량으로 거듭나면서 이 지역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신라 고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료 사찰을 포기하고 선방의 수행분위기를 유지하는 대신, 포교는 안동포교당인 대원사(주지 정우·안동사암련 회장)에 역할을 분담시켜 불교 바람 일으키고 있다.

"물질서 생명, 갈등서 화해로"

충북종교협 평화학교 운영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 교단이 참여하는 충북종교협의회(공동대표 범추스님 외 5인)가 올 여름 고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평화'를 주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총북도내 각 종교단체와 시설을 순회하며 열리는 '함께 희망 만들기 평화학교'가 그것.

여름방학기간인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동안 진행되는 평화학교는 '물질가치 중심의 삶을 생명가치 중심으로, 경쟁과 갈등을 협동과 조화로, 단절과 싸움을 화해와 평화의 문명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아시아 종교평화회의의 한반도 평화지 지성명

마련됐다.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교단별로 30명씩 180여명. 8일 원불교 충북교구에서 여는 마당을 갖고 도지사 초청오찬에 이어 각 교단에 대한 소개와 강연 등 행사를 진행한다. 천주교 천주교구 발전지인 음성 감곡성당 방문과 꽃동네에서의 1박2일 청주항교로 이동해 각 교단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김연세 충북도교육감과 오찬 행사도 갖는다. (043)256-2984 김재경 기자

아시아 종교평화회의의 한반도 평화지 지성명

아시아종교인명평화회의(ACRP)는 7월 21~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신행위원회를 열고 6차 총회를 내년 11월 자카르타 또는 반둥에서 열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 노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신행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및 기타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화해시키는 일을 하려고 다짐한다"며 "남한의 KCRP와 북한종교인회(KCR), 일본의 WCRP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사선이 사회위기 해결책"

백양사 19일 무차법회...서용·송산·진제스님 법문

한국 선불교 전통인 조사선을 통해 한국사회가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차법회가 열렸다. 장성 백양사(주지 다정)는 19일 백양사 대웅전에서 '한국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결사의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제 2회 백양사 참사람 무차법회(無差大法會)를 개최한다.

이번 '참사람 무차법회'는 조사선이 총체적 사회위기 극복의 대안임을 제시하며 탐욕과 과학문명의 그늘에서 고통의 삶을 연명하는 중생들에게 참다운 삶의 자세와 청정한 분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차법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서용스님과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이 증명을 하고 월하, 송산, 진제, 종성, 성본 스님 등 교계 원로·종진과 전국의 선원 수좌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다정스님은 "무차법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공개 토론하는 장으로 선논쟁의 불식과 선종(禪風)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부패와 도덕성 타락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조사선으로 그 대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백양사에서 열린 제 1회 무차대회에서는 깨달음의 본질적 문제인 '불성(佛性)'의 실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는 '불성실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무차법회의 중요요소 중 하나인 선지식과 참가자들의 선문답에 할애된 시간이 매우 적었다는 평가로, 이번 2회 법회에서는 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opia.com)



△사명대사가 주석했던 해인사 흥제암. 보물로 승격됐다.

사명대사비·흥제암 보물 승격

사명대사가 입적하기 전 수도한 곳으로 유명한 해인사 흥제암(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56호)과 사명대사부도·석장비(제145호)가 보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7월 27일 이 두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흥제암은 절에서 보기에는 '인법당'이라는 하나의 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전, 영각, 흥각 및 지장전 등 사명대사와 관련된 여러 공간이 모여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독특한 형태의 공(工)자 건물이다. 1614년(조선 광해군 6년)

해구대사가 사명대사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영당을 건립한 이후 6차례 개·중수되어 왔다.

해인사 사명대사 부도와 석장비는 흥제암에 조성된 사명대사의 부도와 탐비로, 부도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석조형 부도다. 1612년(광해군 4)에 건립된 탐비는 1943년 일본인에 의해 파손, 길가에 방치된 것을 1958년 복원했다. 현존하는 사명대사비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됐으며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건축 및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권형진 기자

덕림사 용음스님 입적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덕림사 조실 용음스님이 7월 23일 오전 10시 세수 79, 법랍 66세로 열반했다. 1933년 13세에 김재 문수사에서 출가, 36년 송광사 도산스님으로부터 사미계 수지(법명 鍾漢), 42년 송광사 대교와 졸업, 43년 석두사상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71년 덕



림사 주지 및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스님은 평생 호남불교 발전에 힘을 기울여 승가의 화합과 승풍진작에 매진했다. 스님의 다비식은 7월25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봉행됐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종단소식

조계종

버스참사 희생자 천도제

제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성덕)는 7월2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내 고속도로 준공기념탑 앞에서 수학여행버스 교통사고로 희생된 부산 부일 고교 학생 13명과 일반인 5명의 영혼을 극락으로 이끄는 천도대회를 봉행했다.

유족 8명과 불교신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행사는 망자들의 한을 푸는 살풀이 춤과 스님 7명의 법패(부산·경남 무형문화재 9호) 공연, 추도 법문으로 이어졌다.

관음사 어린이 여름캠프

제23교구 본사인 제주 관음사(주지 종원)는 18일부터 20일까지 관음사에서 유치부와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예불, 참선, 추적놀이, 즐거운 영어교실, 불경 공부, 단주 만들기 등을 내용으로 한다. 8월19일에는 제주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도 펼친다. (064)702-2828

태고종

서광사 불교복지관 개원

남제주군 남원읍 서광사(주지 성근)는 7일 오전 11시 불교사회복지회관 준공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박완일씨(前 전국신도회장)가 초청법사로 법문한다. (064)764-4126

천태종

전국교원불자 하계수련

전국교원불자 하계수련법회가 9~12일 개최된다. '생활속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수련법회는 전국 교사불자 2백여명이 동참하며, 서울 관문사에서 임재환후 백령도 심청각과 인당수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진각종

신내어린이집 수탁 운영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은 7월 14일 서울 중랑구로 부터 신내어린이집(중랑구 신내동 474-1 소재)을 수탁받았다. 신내어린이집은 연건평 120평의 지상 2층 건물로 놀이방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총지종

14~18일 노인 경도잔치

14일부터 18일까지 두 번에 걸쳐 충북 괴산 종단 수련원에서 경도잔치를 갖는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대상으로 14~16일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이다. 남주수씨 등 연예인 불자들이 초청돼 흥겨운 노래를 들려준다.

총화종

원찰 건립 3개년 계획수립

총무원(원장 남정)은 7월 21일 중앙간부 스님 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찰 건립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원찰은 대지 5천여평에 건평 9백평 규모로 건립되며 예산은 약 50억원으로 총화종은 전국 사업 및 중도들의 모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미륵종

중앙총회 의장 구암스님

제 2대 중앙총회의장에 재구암스님(경기도 양평행운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구암스님은 지난 6월 17일 미륵종 중앙간부 및 전국 교구원장 연석회에서 중앙총회 의장으로 추천되어 7월 13일 김해 성불암에서 열린 중앙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거라 한다면 당신의 삶 전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 02) 396-2736 H-P 016)228-2358
E-mail : bukba@kornet.net FAX 02) 396-2735

2000학년도 경전 전문 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법화경(2)	박종교수(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기원사상 강의
화요일	밀교의세계(2)	허일범교수(진각대)	밀교개론과 대일경·금강정경의 핵심사상강의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 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① 입학원서1통	2000년 8월 1일~	매주 월~화요일
통신반(30명)	② 불교대학대학 이수자	② 주민등록등본 1통	2000년 9월 2일	오후 7시~9시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③ 증명서(사본) 3매	(토) (서류전형)	(본연구원 법당)
		④ 불교대학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3. 개강일시

· 2000년 9월 4일(월), 5일(화) 오후 7시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매주 2경전)을 이수한 분에게 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732-1206~8 / FAX 732-1207

동산 불교 전문 연구원

주부·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8월)
* 모집정원 : 200명

1. 교과목

1년 교과목 불교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근원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성당론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법화사상·반야사상·회암사상·불교사회복지론

2.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의처

☎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산불교대학 입학추천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9월 2일(토) 오후1시 30분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준준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초급반)	한글불교의식 II (중급반)	연수반 III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현공의식 · 정거적으로 행하는 법화의식 · 송주 정엄법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① 일반의식 · 장례의식 ②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 개인종합연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8월 1일(월)~ 2000년 9월 2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6시 (동산법당)

3. 입학금

· 일십만원

4.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5.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동산 불교 의식교육원